

기획취재/ 올해 농약잔류검사 이렇게 이루어진다

속성검사결과 부적합품은 계류조치 24시간 현장중심 분석체계 운영



영농단위별 자체 간이분석 통해 품질관리의식 제고
유관·행정기관, 안전사용 홍보교육 강화

홍보부

부적합 농산물로 일어난 파문이 해당작목반 또는 지역전체로, 더 나아가서는 우리 농산물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확대되고 심지어 수입농산물과의 경쟁에서도 뒤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안전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위한 농약잔류검사는 생산·출하전 및 저장단계에서는 국립농산물검사소가, 유통후에는 각시·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맡고 있다. 이들 기관에서는 농산물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보호하기 위해 농약잔류검사를 지난해보다 강화할 계획으로 있는데 어떻게 강화되는지 알아본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것이 농산물의 안전성이다. 우리가 매일 섭취하는 식품은 영양학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품질면에서도 반드시 안전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한층 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 공급하는 것은 생산자, 유통업자, 관련 산업계 그리고 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공동의 몫

이다.

근래에 서울시의 농약잔류검사결과를 매스컴이 계속 보도하면서 많은 소비자들이 불안해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난해에는 부적합 농산물을 생산·출하한 농업인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일부 농업인이 생산한

안전농산물 유통을 위해 강화되는 농약잔류분석

3월부터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에서 현장중심의 농산물 잔류농약 분석이 한층 강화된다. 서울시는 안전한 농·수산물의 유통을 위해 서울의 주요 도매시장안에 「농·수산물 검사 출장소 및 지소」를 설치한다. 신속한 검사를 위해 2월부터 9월까지 2출장소(가락시장, 경동시장) 3지소(노량진시장, 중부시장, 영등포시장)를 설치하며 연간 12만여건의 농산물과 1만1천여건의 수산물을 검사하게 된다.

서울시는 시보건환경연구원 농산물검사과, 수산물검사과 및 위생관리팀을 가락동 농수산물 도매시장으로 이전하고 2월 12일 「가락농수산물검사소」를 열었다. 농산물 검사팀 강화과과정은 “불량 농산물의 유통 방지를 위해 가락동에 들어오는 농수산물은 상장직후 즉시 시료를 채취해 농수산물 공사에서 2시간여의 간이속성검사를 거친다. 이 검사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의심되는 농산물은 유통방지를 위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에서 계류조치를 하고 곧바로 정밀검사를 실시, 5시간내에 검사를 완료해 안전농산물만을 유통시킬 계획이다” 며 시민을 지키는 ‘마지막 파수꾼’이라는 각오를 밝

힌다.

이를위해 가락농수산물검사소는 5인1조 24시간 3교대 검사체제로 농산물에 주로 사용되는 농약 140여종에 대해 4천여건의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경동출장소는 6월에 설치되어 3팀 24시간 검사체제로 한약재 약용성분 및 중금속, 농약 분석 등 부분검사로 예비가동되며 검사지소는 5월에 대장균, 보존료, 살충제 30여종 등에 대한 현장검사,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의심제품의 정밀검사를 출장소에 의뢰한다.

서울시농수산물공사 이만복 부장은 “농산물 재배과정에서 농약사용은 필수적이다. 그러므로 가락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농산물관리에 책임감을 가지고 반입 농산물중 최근 4년간 1번이라도 잔류농약 검출로 부적합이 된 작물은 반입되는 전체물량에 대해 간이속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면서 소면적 재배 작물용 농약과 새로운 병해충에 대한 약제개발을 아쉬워한다.

현재 부적합이 많이 나오고 있는 채소류, 소위 ‘소면적 재

배작물’에 사용하는 농약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며 또한 안전사용기준조차 설정되어 있지 않은 품목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개발에 박차

이와관련 농약업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농촌진흥청, 농협중앙회 등과 함께 소규모 재배작물용 농약 등록을 위한 시험을 계속하고 있다.

올해 농촌진흥청은 들깨, 쑥갓, 시금치, 취나물, 셀러리, 쪽파, 부추, 근대, 아욱, 머위, 신선초 등 11개 소면적 재배작물의 농약안전사용기준을 보완하기로 하고 15항목, 15병해충, 58약제 약효·약해시험과 40항목, 38약제에 대해 잔류성 시험을 추진하고 있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7월 1일 시행

농림부는 우리 농수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품질좋은 농수산물을 생산·공급하기위해 농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조사제도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특히

‘99 소면적 재배작물용 농약 약효·약해시험 추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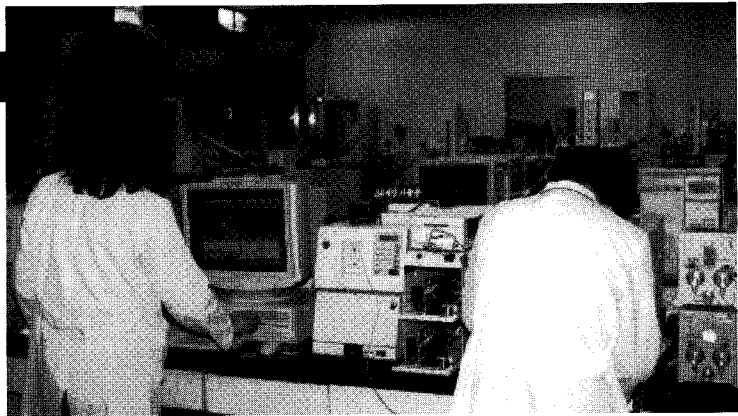
구분	항목수	대상작물수	대상병해충수	시험약제수
계	15	11작물	15종	58약제
실균제	4	들깨 등 4작물	녹병 등 4종	누아리몰유제 등 14약제
살충제	11	쪽파 등 9작물	파총채벌레 등 11종	스피노사이드과립수화제 등 44약제



기획취재

농수산물의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품질관리와 안전농산물의 생산·유통을 위해 생산단계의 농산물안전성조사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농수산물의 품질관리제도 관련규정과 농수산물검사법을 통합하여 「농수산물품질관리법」을 제정, 올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립농산물검사소 장민식 품질관리과장은 “재배 농산물의 잔류농약의 양이 허용기준을 초과하면 1단계로 해당농가에 그 내용을 알려 부적합품은 농가에서 자율적으로 출하연기·용도전환·폐기 등의 조치를 하도록하고 초과원인 진단 및 재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 계도를 할 계획이다. 자율적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단계로 지역추진협의회에 상정, 정부지원사업 중단 등을 하게되며 해당농가 교육 및 특별관리 대상농가로 분류하여 중점관리하게 된다” 면서 올해 7월 1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후에는 관계기관에 직접 고발하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농업인의 철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부적합 농산물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중심의 24시간 정밀농약분석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하고 올바른 농약사용이 절실하다고 강조한다.

출하단계별 농산물 특별조사 계획수립

국립농산물검사소는 올해 조사건수를 80개품목 2만7천건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지난해 부적합비율이 높거나 소비자의 관심이 큰 25개 신선채소류 등을 중점조사품목으로 지정, 안전성이 우려되는 품목을 중점관리하기로 하였다. 조사단계별 정밀분석 건수를 보면 생산단계 5천건, 저장단계 500건, 출하전단계 1천5백건 등이며 품목으로는 생산·출하전 단계에서 72품목, 저장단계에서 13품목 등이다. 또한 수출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강화를 위해 해당농가의 생산과정중 농약안전사용 지도 및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고 농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출국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조사, 수출농산물의 체계적인 안전성관리로 수출을 촉진할 계획이다.

부적합농산물 종합처리 기준도 마련 계획

국립농산물검사소는 부족한 안전성조사 담당인력을 증원하여 전문교육을 실시, 분석기술개발 및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는 등 조사기반을 강화하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 총 27억원을 투자하여 가스크로마토그래피 등 분석장비 99대를

중점조사 관리대상 25개 품목

구분	채소류(21)	과실류(2)	기타(2)
생산·출하전단계	들깨잎, 상추, 썩갓, 신립초, 케일, 취나물, 부추, 쪽파, 시금치, 근대, 아욱, 얼갈이배추, 머위, 참나물, 미나리, 콩나물, 풋고추, 파리고추, 딸기, 오이, 열무	포도, 복숭아	너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추가확보하고 모든 출장소에 간이속성분석장비를 공급하기로 하였다. 또한 부적합 농산물에 대한 출하연기 등 처리기준을 보완하기로 하고 농림부 기획연구과제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농검시험소, 농촌진흥청, 대학교수 등이 참여하는 부적합농산물 종합처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식품의약품안전청도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모니터링 및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기로 하고 올해에도 서울시내 도매시장 및 백화점 등에서 한달에 한 번씩 50여건의 시료를 채취, 신속검사 및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수입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식품, 의약품 등을 분석할때 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 분석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실험실 정보관리시스템(LIMS)를 구축하고 잔류농약 검사에 시범 적용, 투명성을 높이기로 하였다.

규제와 처벌만으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아

최근 우리나라는 농업인구의 감소로 특히 대도시 근교에서는 자작농보다 임차농지나 출입경작지가 많아 주변여건이 변하면 쉽게 다른 지역으로 이

동하거나 업종을 변경하고 있어 평생직업관이 부족한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농촌인력의 부녀화, 노령화로 합리적 농약사용보다는 경험적 사용이나 이웃의 모방사용이 많은 것도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문제점을 외면한 체 규제와 처벌만을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안전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산업계 및 유관기관의 상호협조와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 농림부는 이를 위해 재배기간중 현장방문으로 농약안전사용 요령에 대해 수시교육을 실시하고 농촌진흥청 등 관계기관과 합동교육으로 교육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인터넷홈페이지를 통해 안전성 관련 자료를 전파하고 리후렛 제작, 배포와 TV, 신문 등 매스컴을 적극 활용하여 안전사용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한편 농협은 산지출하전 속성검사로 안전농산물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농업인 농약안전사용 지도를 강화하기로 하고 현재 대만에서 수입, 속성검사에 사용되는 효소의 자체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끌

어내기 위해서는 영농단위별로 간이속성검사방법을 교육하고 실시하여 자체품질관리를 강화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각 도매시장에서는 농산물별로 우수 영농단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는 등 자체 품질관리를 유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농약업계의 끊임없는 안전사용교육 절실

한편 농약업계에서는 각종 판촉세미나, 교육 등에서 농산물의 안전성 확보의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교육을 끊임없이 실시하고 특히 농약판매상은 농업인과 최일선에서 접촉하는 안전사용홍보의 첨병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안전사용기준에 맞는 농약사용방법을 권장해야 한다. 이를 무시한 권장이나 추천으로 입는 농업인의 피해는 농약판매상의 매출액에 직결되기 때문이다.

농약잔류검사가 강화되어서 가 아니라 안전농산물 생산만이 우리 먹거리가 신뢰받을수 있는 유일한 길이며 수입농산물과 경쟁에서 이길수 있는 길이다.

올 한해에도 모든 농업인들이 안전사용기준을 준수해 한해동안 땀흘린 노력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하다. **농약정보**